

■ 지금 여기 ■

브레이빅 테러와 유럽의 위기¹⁾

엄운옥

I.

2011년 7월 22일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참극이 일어난 날이었다. 아네르스 베링 브레이빅(Anders Behring Breivik, 당시 32세)은 정부청사 앞에서 차량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곧바로 우토야 섬으로 건너가 집권 노동당 청년 캠프에 참가한 10대 청소년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했다. 브레이빅의 테러로 정부청사 부근에서 8명, 우토야 섬에서 69명, 모두 77명이 사망했고, 151명이 부상당했다. 경찰복 차림에 미소 띤 얼굴로 목표물 맞추듯 한 명씩 총격을 가한 ‘살인마’의 행각은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흉악범죄를 받아들이는 손쉬운 방식은 개인 병리로 돌리는 것이다. 노르웨이 법정은 처음에 ‘오슬로의 학살자’를 정신병자로 몰아갔다. 2011년 11월 29일 법정은 브레이빅을 ‘편집증적 정신분열증’이라고 판정했다. 법정이 임명한 정신과 의사 토르기어 후즈비(Torgeir Husby)와 신 쇠르하임(Synne Soerheim) 역시 보고서를 통해 그가 “자신만의 망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13회에 걸친 면담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243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가 통과되면 브레이빅은 감옥에 수감되는 대신 평생 동안 강제 정신치료를

1) e-journal 《호모 미그란스》의 <지금 여기> 코너에 실릴 이 글을 준비하면서 이민인종연구회 조교 김영희, 전해솔과 그 외 여러 회원들이 찾아 올려준 국내외 신문과 잡지의 이주, 인종 관련 기사 목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기회를 통해 감사의 뜻을 밝힌다.

받게 될 수도 있었다.²⁾

브레이빅은 범행 몇 시간 전에 지인들에게 이메일로 1,518페이지에 달하는 선언문 『2083 유럽독립선언(2083 A Europe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이하 『선언』)을 발송했다. “완벽하고 자연스런 영어 문장”³⁾으로 쓴 이 선언문에서 브레이빅은 자신을 마르크스주의-다문화주의-이슬람주의에 맞서 싸우는 ‘기독교 정의(正義)의 기사(騎士)’로 묘사하고 있다. 법정의 판정이 옳다면, 『선언』은 ‘정신나간 자의 녀두리’란 말인가?

‘편집증적 정신분열증’ 판정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일반감옥에 수감될 경우 브레이빅이 일종의 순교자인양 극우사상을 동료 수감자에 보급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보안이 잘된 정신병원에 수감하는 것이 그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에 일리가 없지는 않다. 그 해 여름의 엄청난 비극이 정신이상자의 소행이었다면 노르웨이 사회가 하루 빨리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역시 높았다. 브레이빅 자신도 이번 판정에 대해 모욕적이며 자신이 바라던 바가 아니라고 불평했다고 한다. 가장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측은 테러 희생자의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들로서, 브린야르 멜링(Brynjar Meling) 변호사는 신속히 재감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디어 또한 그동안 브레이빅이 수년 동안 테러를 어떻게 준비해왔는가를 상세하게 묘사해왔기 때문에 판정 결과를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전문가의 견해도 갈렸다. 범죄과학 전문가 감정에서는 5명 중 1명만이 그가 정신이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오슬로 대학의 심리학 교수 스벤 토거센(Svenn Torgersen)은

2) “Norway Massacre: Breivik Declared Insane,” *BBC News*, 29 November 2011. <http://www.bbc.co.uk/news/world-15936276> (검색일: 2012년 1월 1일)

3) Gordon Rayner, John Bingham and Tom Whitehead, “Norway Killer Anders Behring Breivik Called Gordon Brown and Prince Charles ‘Traitors’,” *The Telegraph*, 24 Jul 2011.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norway/8658431/Norway-killer-Anders-Behring-Breivik-called-Gordon-Brown-and-Prince-Charles-traitors.html>. (검색일: 2012년 2월 29일). 고든 브라운은 영국이 무슬림 사회가 되고 런던이 국제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가 되도록 방지했고, 찰스 황태자는 사우디 왕가의 기부로 설립된 옥스퍼드 이슬람연구 센터(Oxford Centre for Islamic Studies)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처단해야 할 배신자로 지목되었다.

브레이빅이 정신이상이라면 히틀러나 스탈린도 같은 진단을 받았을 것이라고 법원의 판정을 비난했다.⁴⁾

결국 2차 검사에서는 최초의 정신감정과 상반되는 결과가 나와서, 2012년 4월부터 브레이빅은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 브레이빅에게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는가가 이 글의 관심사는 아니다. 하지만 브레이빅이 노리는 선전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정 전략이 자칫 ‘오슬로의 학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극우 사상과 인종주의의 뿌리를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회범죄의 원인을 개인 병리로 보는 안이한 해석에 안주하지 않고 브레이빅 테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브레이빅의 일관성 없는 논리를 깊게 읽어내는 방식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오슬로 테러를 통해 드러난 유럽의 위기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은 필자에게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수많은 관련 문헌 가운데 토머스 헉해머(Thomas Hegghammer), 키넨 말릭(Kenan Malik), 슬라보예 지젝(Slavo Žižek)의 분석을 소개하고 몇 가지 논평과 단상을 덧붙이는데 그칠 것이다.

II.

노르웨이 국방연구소(Norwegian Defence Research Establishment) 연구원으로 이슬람 전문가인 토머스 헉해머는 2011년 7월 31일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 기고문 「거대-민족주의의 등장(The Rise of the Macro-Nationalists)」⁵⁾에서 브레이빅을 ‘기독교판 알카에다(a Christian version of Al Qaeda)’라고 규정한다. 브레이빅의 세계관은 백인우월주의, 극단적 민족주의,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극우 이데올로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슬람 대 서구 문명 간의 전쟁’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추가해야

4) Liss Goril Anda, “Norwegian Disbelief at Breivik ‘Insanity,’” *BBC News*, 29 November 2011. <http://www.bbc.co.uk/news/world-15954370> (검색일: 2011년 12월 13일).

5) Thomas Hegghammer, “The Rise of the Macro-Nationalists,” *The New York Times*, 31 July 2011. <http://www.nytimes.com/2011/07/31/opinion/sunday/the-rise-of-the-macro-nationalists.html> (검색일: 2011년 12월 13일).

한다는 것이다. 브레이빅의 『선언』은 반(反)지하드(anti-Jihad)를 주장하는 노르웨이 인터넷 사이트의 인용으로 가득 차 있다. 알카에다와 브레이빅 모두 자신들의 테러를 방어전쟁이라 부르고, 순교자의 언어를 구사한다. 희해머는 브레이빅과 알카에다가 유사한 이데올로기인 ‘거대-민족주의(macro-nationalism)’를 표방한다고 본다. 거대-민족주의는 변형된 민족주의로 ‘서구(the West)’나 ‘이슬람 움마(Islam Ummah)’ 같이 공동의 정체성을 갖는 복수의 민족국가가 합쳐진 단위로 표출된다. 알카에다가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 대한 무슬림의 반감을 이용하는 것처럼, 브레이빅도 유럽의 반(反)무슬림 정서라는 거대한 저수조의 물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브레이빅과 알카에다의 유사성을 ‘거대-민족주의’라는 틀로 설명하는 희해머의 논지는 새뮤얼 헌팅턴(Samuel Huntington)의 ‘문명의 충돌론’을 연상시킨다. 거대-민족주의가 작동하는 단위는 문명의 구분과 일치한다. 서구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의 충돌은 브레이빅이 『선언』에서 내걸고 있는 신념이기 때문에 희해머의 해석은 표면적으로 보면 잘 들어맞는다. 그러나 ‘문명의 충돌론’류의 논리가 내포한 문제점은 문명이든 민족이든 공동체의 단위를 본질적 실재를 가진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서양 대 동양’, ‘서구 대 이슬람’이라는 ‘상상의 지리(imaginary geography)’를 현실에 견고한 뿌리를 둔 것처럼 보게 되면, 공동체 내부의 다양성과 혼종성, 공동체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보지 못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위험은 이런 논리를 따라가면 헌팅턴이 “미래의 가장 위험한 충돌은 서구의 오만함, 이슬람의 편협함, 중화의 자존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것”⁶⁾이라고 예언한 것처럼, 문명들, 민족주의들, 거대-민족주의들 사이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예단하게 된다는 데 있다.

한편, 인종관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영국의 저널리스트 키넨 말릭은 2011년 7월 30일 스웨덴의 신문 『베르겐스 티덴데(Bergens Tidende)』에 「브레이빅 테러의 비극적

6) 새뮤얼 헌팅턴 지음 ·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6), p. 243.

아이러니(The Tragic Ironies of Breivik's Terror)」⁷⁾라는 글을 기고했다. 브레이빅과 지하드의 ‘공생관계’를 지적한다는 점에서 말릭은 희해머와 논지를 같이 한다. 그러나 말릭의 분석은 ‘문명의 충돌론’과는 다르다. 말릭은 브레이빅이 신봉하는 문명의 충돌론이 문화에 대한 정태적이고 본질주의적인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 브레이빅도 지하드 테러리스트도 역사상 실제로는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진정한’ 기독교 유럽의 정체성, ‘진정한’ 이슬람의 정체성이라는 ‘허구’를 불러내고 만들기를 원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다. 말릭은 또한 다문화주의에 대한 브레이빅의 공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를 폭로한다. 브레이빅의 아이러니는 그가 다양성과 다문화주의를 증오함에도 불구하고, 문명의 충돌에 대한 브레이빅의 신념은 문화적 차이와 문화적 정체성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데서 나온다. 브레이빅과 지하드의 가장 중요한 유사성은 둘 다 토론과 대화, 충돌하는 상이한 가치와 신념의 상호 조절과 변화 가능성 등으로 형성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라는 관념을 무시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말릭은 대량 이주로 인해 다양성이 증가된 사회, 즉 ‘다문화 상태’를 국가가 경영하는 정책을 ‘다문화주의’라고 본다. 다문화주의 정책의 문제점은 사람들을 ‘에스닉 상자(ethnic box)’ 혹은 ‘문화 상자(cultural box)’ 속에 가둔다는 것이다. 소수자 공동체는 단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동질적 집단으로 취급된다. 이런 식의 다문화주의는 공동의 시민권을 약화시킨다고 말릭은 비판한다. 다양성의 옹호자이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자인 말릭⁸⁾이 보기에 브레이빅은 다문화주의를 공격하고 있지만, 사실은 고정적이고 정태적인 문화 개념을 다문화주의와 공유하고 있다. 브레이빅은 잘못된 다문화주의와 마찬가지로 ‘서구 기독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를 폐쇄적인 ‘문화 상자’에 가두고, 이슬람의 위협에 대항해 서구 문화를 옹호해야 한다는

7) Kenan Malik, "The Tragic Ironies of Breivik's Terror," *Bergens Tidende*, 30 July 2011 http://www.kenanmalik.com/essays/bergens_breivik.html (검색일: 2012년 1월 1일).

8) 말릭은 영국 다문화주의 정책에 대해 소수자 공동체별로 ‘에스닉 상자’를 만들고 종교 지도자들이 각 소수자 집단을 대표하도록 함으로써 여기에 조응해 공동체 내부에서 종교적 성향이 짙어지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근본주의자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비판한다. Kenan Malik, "How Multiculturalism Failed,"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7 July 2011.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 말릭의 진단이다.

지젝은 8월 8일 『가디언』지에 기고한 글 「브레이빅 테러의 사악한 논리(A Vile Logic to Anders Breivik's Choice of Target)」⁹⁾에서 브레이빅이 적(敵)을 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브레이빅은 마르크스주의, 다문화주의, 이슬람주의라는 서로 다른 정치적 공간에 속하는 사상을 조합해 마르크스주의 급진 좌파,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자, 이슬람 근본주의자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브레이빅을 통해 불세비키 유대인 급권정치, 불세비키 급진 좌파, 자본주의 급권정치, 민족적·종교적 정체성 같은 상호배타적인 특성을 모두 적에게 갖다 붙이는 파시스트의 낡은 습관이 ‘새 옷’을 입고 돌아왔다고 지젝은 말한다. 브레이빅의 일관성 없는 논리는 네오-파시즘으로 향해가는 유럽적 위기의 징후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지젝의 주장이다.

브레이빅은 한때 영국의 극우단체 ‘영국수호동맹(English Defence League)’과 접촉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30년대 유럽의 파시즘이 ‘반유대주의’를 먹고 자라났다면, 오늘날 네오-파시즘은 ‘이슬람혐오’를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는 지젝의 지적이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오히려 지젝의 분석에서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유럽 우파가 브레이빅 테러를 이용하는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다. 브레이빅의 공격 대상은 무슬림 이민자가 아니었다. 지젝의 말대로 브레이빅의 테러 공격 목표 설정에는 사악한 논리가 있다. 그는 외국인이 아니라 무슬림 이민자에 관용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을 펼쳤던 집권 노동당의 ‘미래 지도자들’을 공격했다. 즉 공동체 내부의 배신자를 겨냥한 공격이다. 문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유럽의 정체성’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의 위기는 경제와 금융 위기로 나타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위기는 이데올로기와 정치 차원의 문제이다. 몇 년 전 유럽연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 부결 사태가 잘 보여주듯이 유권자들은 유럽연합을 민중을 동원할 전망을 주지 못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의 경제연합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에 맞서는 유럽의 방어라는

9) Slavoj Žižek, “A Vile Logic to Anders Breivik’s Choice of Target,” *The Guardian*, 8 August 2011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1/aug/08/anders-behring-breivik-pim-fortuyn>(검색일: 2012년 1월 1일).

이데올로기가 민중 동원의 유일한 기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젝에 의하면 우파가 외우는 상투적인 주문은 이렇다. 브레이빅의 극단적인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그가 “진정으로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합당한 관심”보였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식이다. 주류 정치가 유럽의 이슬람화와 다문화주의에 의한 유럽 침식에 대처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슬로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교훈삼아 이제는 유럽의 정체성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요컨대 유럽의 정체성이 무슬림에 의해 위기에 처해 있다는 브레이빅의 진단은 정당하다. 다만 제기하는 방식이 실정법에 저촉되었을 뿐이다. 이런 해석이야말로 바로 브레이빅이 노리는 효과가 아닌가!

아울러 지젝은 브레이빅의 일관성 없고 모순된 논리가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외피를 입고 있다고 지적한다. 브레이빅은 반(反)여성주의자이며 여성에게 고등교육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낙태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다고 밝히고 있다. 지젝은 브레이빅의 논리가 네덜란드의 우파 포플리스트 펴 포투인(Pim Fortuyn)과 닮아 있다고 본다. 포투인은 2002년 5월에 암살당한 네덜란드의 우파 정치가이다. 암살 당시 2주 후로 예정된 선거에서 그는 유권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표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포투인은 모순된 인물이었다. 동성애자이며, 이민자들과 사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타고난 유머 감각을 보였다. 우파 포플리스트로서 그의 개인적 특성이나 견해는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이었다. 요컨대 무슬림 이민자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외하면 그는 ‘선량하고 관용적인 자유주의자’였다. 포투인이 구현하고 있는 것은 우파 포플리즘과 자유주의의 정치적 올바름의 교차(intersection)였다. 우파 포플리즘과 자유주의적 관용의 대립이라는 이해는 잘못된 것이며, 포투인은 양자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생생한 증거라는 지젝의 예리한 지적은 귀담아 들을만하다.

III.

이번 오슬로 참극은 그동안 ‘복지국가’로 알려졌던 노르웨이의 숨은 문제를 밖으로 드러냈다. 사회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노르웨이 노동당의 지지율이 약 29% 정도인데 비해 비서구 출신 이민자의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하는 초강경 이민규제를 주장하는 극우정당 진보당의 지지율도 무려 20%에 이른다고 한다.¹⁰⁾ 극우 진보당의 약진은 우파 포퓰리즘에 의한 반(反)이민 정서의 증폭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르웨이뿐만 아니라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이민자의 사회적 계도화와 ‘민족-계급화(formation of ethno-class)’, 즉 민족 구분과 계급 구분의 중첩현상은 심각한 정도로 진행 중이라고 한다.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육체노동과 감정노동을 담당하는 계층은 비백인·비서유럽 이주민들이다. 공사장 노동자의 다수는 폴란드나 발트해 연안 국가들, 남유럽 국가들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이고, 가사노동은 필리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북유럽에서 이주민은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이지만, 대도시에서는 이미 그 존재감이 강렬하다. 오슬로에서는 전체 도시 인구에서 비유럽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17%나 된다고 한다.¹¹⁾ 이러한 비유럽계 이주민의 가시성(可視性)은 유럽연합 위기의 원인을 이주민이라는 희생양에게로 돌리는 우파 이데올로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反)이민 정서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무슬림 이민자들은 유럽 사회에서 ‘소수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지 유럽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위험인물이 아니다. 피터 서덜랜드(Peter D. Sutherland) 골드만삭스 회장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민자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불만도 사실이 아니다. 아랍혁명이 유럽으로의 ‘이민 쓰나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는 것은 유럽의 경제위기로 이민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反)이민 정서와 반(反)이슬람 정서를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는 정치가들에게 서덜랜드는 일침을 놓는다.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고령화 사회 문제에 직면한 국가에서 이민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확보해 주지 않는다면 특히 의료와 재택 서비스 분야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생겨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라고.

10) 박노자, 「노동당에 경종 울린 오슬로 참극」, 『경향신문』 2011년 7월 2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7282158065&code=970205(검색일: 2011년 7월 29일).

1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주최 박노자 초청강연 「북유럽의 이민자 사회: 이상과 현실」 발표문 (2011년 7월 19일).

이민자 문제에 관해 우리 모두는 한배에 탔는데 배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침몰을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¹²⁾

그러나 서덜랜드의 점잖은 경고가 힘을 발휘하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험난해 보인다. 브레이빅의 끔찍한 테러는 유럽의 극우 이데올로기와 인종주의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가를 새삼 실감나게 했다. 브레이빅의 테러 이후 이민자에 대한 공격이 더욱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은 불과 몇 달 사이에 현실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13일 이탈리아 피렌체와 벨기에 리에주에서 대낮에 아프리카계 이민자가 총기난사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잔루카 카세리(Gianluca Casseri, 50세)는 피렌체 달마치아 광장에서 점심시간에 세네갈 출신 노점상들에게 총을 난사해 2명이 즉사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¹³⁾ 벨기에 리에주시 생랑베르 광장에서는 노르딘 암라니(Nordine Amrani, 33세)가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하는 무차별 살상극을 자행해 생후 23개월 된 아기와 15세와 17세 청소년 등 3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¹⁴⁾ 오슬로와 피렌체, 리에주에서 연이어 발생한 테러는 유럽연합의 경제 위기와 정체성 위기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유럽의

12) [시론/피터 서덜랜드: 격동의 2011&2012] <8> 확산되는 ‘反이민 정서’ 포폴리즘, 『동아일보』 2012년 1월 10일. <http://news.donga.com/3/all/20120110/43200969/1> (검색일: 2012년 3월 2일).

13) 피렌체 사건에서도 여론은 카세리를 정신 나간 외톨이와 연결 지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영국의 사회학자 알라나 렌틴(Alana Lentin)의 분석은 다르다. 이민자의 경험과 증언에 의하면, 카세리의 총기난사는 이탈리아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표면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이다. 모두 삼(Nodou Samb, 40)과 모르 디오프(Mor Diop, 54) 두 명의 희생자와 같은 불안정한 삶은 이주민에게만 연해 있다. 그런데도 경찰은 오히려 지난 화요일 이 사건에 항의하는 집회를 해산시키고 10명의 세네갈인을 체포했다. 더구나 이번 충격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 2011년 12월 11일에는 토리노의 콘티나사(Continassa) 집시 캠프가 불타 집시들이 모두 이곳을 떠나야 했다. 방화 사건의 발단은 16세 소녀가 두 명의 집시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었는데 이 주장은 결국 소녀가 꾸며낸 것으로 밝혀졌다.

Alana Lentin, "The Florence Killings Are a Symptom of a Wider Racism," *The Guardian*, 16 December 2011. <http://www.guardian.co.uk/commentisfree/2011/dec/16/florence-killings-racist-italy> (검색일: 2012년 3월 2일).

14) 「벨기에 수류탄 살상·인종차별 충격… 유럽 ‘피의 화요일’ : 이극우주의자, 피렌체 시장서 세네갈 이민자에 총기 난사」, 『서울신문』 2011년 12월 15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15017009> (검색일: 2011년 12월 16일).

위기는 지젝의 말대로 ‘반이민 포퓰리즘(anti-migration populism)’을 낳는 토대가 되고 있다. 브레이빅의 경우는 다문화주의를 추구하는 집권 여당이 공격목표였다는 점에서 공동체 내부를 향하고 있었지만, 피렌체와 리에주의 테러는 이민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다. 브레이빅 테러로 표출된 유럽의 위기가 네오-파시즘 망령의 출몰을 예고하는 신호탄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적중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고려대 역사연구소, woyeom@hanmail.net